

교수칼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생긴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진실로 다가올 때

제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이 세

상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아직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을 맡으신다는 데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차’가 바로 옆이 천 길 낭떠러지인 길을 가고 있어도, 눈 덮인 빙판 길을 달리고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걱정이나 탈 없이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뢰에서 비롯된 참된 평안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평안이 가져다주는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열매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일치할 때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평안하게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서 평정을 잃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참된 평안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참된 평안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한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의 과감한 결단과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를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창22:3) 그는 주변 사람들과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하며 사람의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며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담담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삼일 동안 이동하여 주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행여나 종들이 자신을 만류할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삭만 데리고 번제 장소로 갑니다. 제물이 어디 있냐고 묻는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잘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창22:8) 이처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두렵고 불안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나에게 예비하셨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일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 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청년들도 당연히 미래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신이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어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즉시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걱정과 염려가 어떻게 오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걱정과 염려는 나의 시선이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또는 주변의 친구들에 비하여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때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하나의 기준을 쫓아 살다가 보면 금세 다른 기준이 생겨서 우리를 이리저리 방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발에 ‘등불’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걷는다면 비록 캄캄한 암흑 속을 걸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담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이삭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 길의 끝에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한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정우 교수(지구환경과학부)

개강예배

서울대기독교연합 개강예배가 9월 11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서울대학교 28동 101호에서 열린다. 이번 개강예배의 말씀은 김정운 목사님(빛트인교회)이 담당하며 주제는 ‘아름다움으로 승리합니다!(시편 27:1-4)’이다. 예배 후에는 음미대 식당에서 단대별로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

2017년 2학기 서울대 개강연합예배

아름다움으로 승리합니다

여호와께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말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재물을,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쫓아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언병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애연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열매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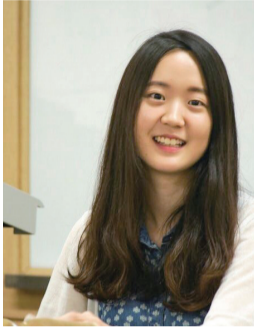
강사 : 빛트인교회 김정운 목사님 본문 : 시편 27:1-4
 일시 : 9월 11일 월요일 늦은 6시 장소 : 28동 101호
 문의 : 정재아(010-7140-9501)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칼럼 ... 박정우 교수
- 2면 간사칼럼 ... 이민지 간사
사역자의 글 ... 이차권 행정실장
- 3~4면 캠퍼스를 떠나며 ... 민소연
수양회 간증 ... 홍주성
수양회 간증 ... 정지영
- 5~7면 단대기연 / 선교단체 소식
- 8면 마이크모 소개 ... 오찬주
서기연 중앙위원단 MT

간사칼럼

“인생의 초점이 향하는 곳”



안녕하세요. 캠퍼스에서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 분들을 이렇게 글로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올 해 2월에 졸업하고, JOY선교회 신입간사가 된 간호학과 12학년 이민지입니다. 이제 간사가 된 지 한 학기 밖에 되지 않은지라, 간사 칼럼을 쓴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캠퍼스 생활을 했던 선배이자,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캠퍼스에 남아있는 한 사람으로서,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배우게 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보낸 대학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 특별하지는 않은 평범한 생활이었습니다. 연건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으며 실습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나 정도 하고, JOY선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쌓으며 신앙 생활을 하는 평범한 패턴의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춘의 시기에 경험한 것들은 그 아무리 평범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관과 철학을 형성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곳에서 보낸 시간 속에서 경험한 크고 작은 사건들도 저라는 한 사람을 형성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들 중에서, 제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말씀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제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저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저는 한번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인생의 방향에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3학년 때 1박2일동안 복음에 대한 강의를 듣는 복음 캠프에서였습

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점차 저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는 치명적인 병과 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의 반응은 애석하게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신이 저의 주치의이신데 그동안 무얼 하신 겁니까. 제가 매년 검진도 빼먹지 않았는데(예배에 빠진 적도 없고, 신앙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두실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이렇게 캠퍼스 시기는 말씀 앞에서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며 요구하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 자신을 위한 것으로 교묘하게 치환해버리는 자기기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외면했고,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슬퍼했고, 나중에는 아무리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해도 저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처음으로 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저 자신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만이라도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은혜란 저의 어떤 능력과 자질로 얻어내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은혜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제가 어떤 소망도 없는 죄인이라는 자기 직면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과,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간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자신이 없고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 마주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 시절을 통해 배운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그 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조정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끄시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

이민지 간사(JOY)

섬기는 그리스도인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
직원으로는 처음 선정되다.

서울대학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헌신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학내 구성원들의 귀감이 되는 교수, 직원, 동문 등을 선정하여 2011년부터 사회봉사상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초 저는 한 통의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2017. 6. 8.(목) 오후 3시 본부 학사위원회 시상식이 있다는 소식이었

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28년 근무하면서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이라는 뜻 깊고 보람 있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여파로 어릴 때부터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빗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맑은 자리에서 자족과 긍정의 마음으로 ‘위를 바라보기 보다는 아래를 바라보며 살자’라는 제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이웃사랑 실천을 결심했습니다.

직장 안에서 교직원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말씀을 실천하고자 「이웃사랑 섬김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웃사랑 섬김이」 모임 시작은 2000년 12월말,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유명한 관악구 난곡동 사랑의 밥집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하루 3끼 밥을 못 먹고 학교에 다니는 결식아동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의 밥집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의 이야기가 ‘매년 연말연시 찾아와 주는 것도 고맙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매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닫기를 ‘그래, 진정한 도움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구나.’ 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밀려나 시장터 골목골목에서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과 아이들에게 무료도시락 나눔으로 희망을 주고, 연말연시와 추석/설 명절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밥집 결식아동 돕기를 시작으로 상록보육원 아이들 돌보기(사당동), 동명아동복지센터 아이들 돌보기(봉천동) 등의 일을 하고 매년 12월 연말에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었고, 동명노인복지센터 치매 어르신 90명 섬기기(봉천동)를 매월 1회 이상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했습니다.

아이들 돌보기와 치매 어르신 섬기기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봉사활동이라 비가 오나 눈

이 오나, 우리를 기다리는 그들을 위해 한 번도 빠지지 않고자 노력했고, 어느 날 봉사자가 없을 때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까지 동원하여 온가족이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런 일은 값을 매기거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이 선사하는 최고의 상은 가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나누고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의 목적을 보니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동료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사회봉사상 목적을 깊이 새기어 저를 늘 비추어 보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상 소식을 들은 어느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상은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사인이다. 앞으로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더 열심히 섬겨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을 통한 바람이 있다면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아직도 우리들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관악구내 소외된 이웃을 내 몸 같이 돌보는 디딤돌 역할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은 교수, 직원, 학생 등 서울대 구성원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캠퍼스 등 학내·외 문제로 불신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웃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벧전 5:6-7)

우리는 종종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탄하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낙담합니다.

그런 염려는 정말 걱정도 팔자입니다. 진짜 걱정은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살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이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시대 가장 필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권 행정실장(사회과학대학)

캠퍼스를 떠나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할 9가지 조언들



안녕하세요. 저는 8월 29일자로 학부생에서 졸업생이 된 종교학과 13학번 민소연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나의 빛>을 통해 졸업의 은혜를 나눠주면 어떠하겠냐는 제안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약 4년 반 동안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제게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캠퍼스 속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와, 선교단체에서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저를 성장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을 적자면 지면이 부족할 테지만, 이 글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는 에코도르 오지 선교사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청년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학년이 되어 1,2학년 후배들에게 <내가 1,2학년으로 돌아간다면 꼭 들었으면 하는 조언들>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엘리엇 선교사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울대학교의 학부생들에게 꼭 하고픈 조언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예수님을 구세주 뿐 아니라 일상의 주님(daily Lord)으로 영접하세요.

저는 3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지만, 제가 참으로 추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20살 여름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시작되면서 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고 기쁨과 평안은 물론 삶에 귀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삶은 양과 같이 시야가 좁은 저의 어리석은 선택들로 인해 파멸과 고생이 가득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상을 살면서 말씀의 지혜로 사탄의 구렁이들을 피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나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 죄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자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복음이 삶이 되도록 매일 예수님을 일상의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2.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상의 최우선순위에 두세요.

사실 하루의 가장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과 떨어지지요. 감사하게도 대학시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훈련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최우선시하세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삶의 요소(미디어, 인터넷, 사람 등)들을 제거하세요.

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만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부름 받았습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동기, 소꿉친구, 친척 등의 지인은 물론, 택시기사 아저씨, 매점점원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틈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수업을 들을 때 만나는 팀원들을 위해 미리 기도하며 복음 전할 기회를 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수업 들은 교수님들께 겸손히 제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게 노방전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덕분에 적어도 2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내용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지만 주변 지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한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 들으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실 전도를 하면 최대수혜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4. 주님을 사랑한다면 맡겨주신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여주세요.

복음으로 낳았으면 양육해주어야 합니다. 최고의 돌봄은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여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잘 돌보고 양육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혼자 힘으로는 이러한 삶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영적 아버지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러한 가치를 함께 가지고 가는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5.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가치에 투자하는 삶을 사세요.

누구나 나의 몸은 쉬는 것, 내 한 몸 사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영원한 것을 좇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이것들에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섬김과 생명 살리는 일,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에 투자하는 삶을 사세요.

6. 청년시절을 복된 결혼생활을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삼으세요.

대학시절은 청년의 정욕이 왕성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대학생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하는 1순위 중 하나가 분별없는 이성교제이기도 하겠지요. 저는 대학시절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기를 준비하는 성숙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늘 마음을 다잡고 전인격적 성숙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가 있

기 전까지는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이성교제를 결정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신실히 저를 인도하셨고 때문에 저의 대학시절은 솔로였지만! 이 기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인도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적어도 학부시절에는 주님 안에서의 성숙과 성장으로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7. 누구에게든 배우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세요.

저의 인격과 영성이 가장 많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때는 가르치려는 태도에서 배우려는 태도로 제 마음을 변화시켰을 때였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독대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마 11:28-30)께 나아가 많이 배우세요.

8. 말한 대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세요.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삶이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아는 경험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마 12:33). 삶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사람을 본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가 있다면 가서 적극적으로 배우세요.

9.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치열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연습하세요(딤후 4:7) 내 명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길을 맡기면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시 3:5,6, 시 37:5,6)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자기 명철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훈련은 이것을 깨뜨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경험보다 말씀의 믿음을 선택하세요. 놀랍게도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순종을 할 때에는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에 자기 뜻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과를 먹을 때 한 번에 한 입씩 먹듯 순종도 보여주실 때마다 한 번에 하나씩 하면 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불순종하기를 일삼던 저를 깨뜨리고 다루셔서 조금씩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기 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평생이 될 텐데, 앞으로 평생의 삶에서 이 글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상을 살면서도 영원한 것을 위해 삶을 헌신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대학시절 일기 속 한 마디로 글을 마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민소연(종교학과 13)

수양회 간증문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저는 남다를 것 없는 평범한 모태신앙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듯이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고 방학마다 교회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않지만, 학업을 핑계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보다 수학의 정석을 가까이했고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학원 수업에 더 귀를 기울였으며 중요한 시험, 대학 입시가 다가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제 목표했던 대학과 학과에 합격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합격 발표 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다짐은 이내 교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제 능력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새내기 첫 학기, 원하던 대학과 원하던 학과 생활을 하며 깊어진 교만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기습 한편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책감을 무마하기 위해 ESF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기대보다도 사람들을 만날 기대가 늘 더 컸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열심이었던 저였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즈음 ESF 여름 수양회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러 핑계를 대며 수양회를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전과 달리 하나님께서 수양회에 참석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죄책감들을 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수양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동안 제가 가졌던 기도 제목은 '믿음의 회복'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번 ESF 여름 수양회의 주제는 "I AM"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속 예수님의 7대 자기 선

언을 돌아보는 총 네 번의 주제 강의 동안 간사님들께서 제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100명 중 99명은 우리를 읽는다.”

믿음을 가지는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지만,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얻는다는 말입니다. 최근 일부 교회 목회자들의 비리로 인해 기독교 전체가 비판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고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한 여인을 돌려 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의 ‘죄 있음’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만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본이 되셨듯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모르고 살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 같아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100%의 순종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1학기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99%는 고사하고 10%는 순종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너무나도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100% 순종하리라고 결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적어도 수양회 기간에는 100%의 순종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00%에 가까워지려는 그 노

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며 아침QT를 하고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등 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시한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던 저를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 되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회복.’ 죄인임을 여실히 느꼈던 수양회를 마치며 제가 가졌던 기도 제목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수양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양회에서 잠시 믿음이 회복된 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제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일상에서의 믿음의 회복’

수양회가 끝나고 한 달 이상이 지난 지금 방학 동안의 제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게을러지고 흐트러진 제 모습은 100% 순종과 다시 떨어진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임을 믿고 저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일상에서의 믿음의 회복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방학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을 잊은 삶은 아니었나요? 2학기를 시작하는 지금 바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홍주성(수리과학부 16, ESF)

2017-여름 JOY 수양회 후기



사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글을 읽고 JOY에 대해 (그리고 저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또 수련회 간증으로 쓰기에 알맞은 내용일까 등의 걱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이번 수양회는 지금까지도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글을

쓴 목적은

-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공감하기 위해,
- 기억은 미화되므로 혹시나 다음 수양회에 갈까 고민하는 미래의 저에게 냉정하게 이번 여름 수양회의 기억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JOY 공동체의 한 공동체원일 뿐이며 제 느낌이 모든 JOYer들이 수양회에서 받은 은혜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글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 글이 곡해 없이 전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1. 수양회의 이유

제가 수양회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귀찮다... 내가 여기 왜 있지?’와 ‘그래서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수양회의 목적 자체에 대한 회의, 그리고 제 상태와 설교 내용에 대한 짜증(이 단어가 저의 당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과 분노였습니다.

첫째 날 수양회 개최 예배를 드리는데, 열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가 방관자로 사람들을 멀찌감치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을까,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양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데 나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결국 수양회가 끝날 때까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 친구들과 선배들이 저에게 권면해 준 것처럼 ‘하나님을 관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 상대에게 아무리 밥을 많이 사고 편지를 많이 써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을 그만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솔직하게 아직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들

사랑한다고 확신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신을 사랑한다는 건 뭘지? 어떤 느낌이지? 어떤 확신을 가져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라는 궁금증을 지금도 안고 있습니다.

또 수양회 일체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수양회는 결국 흔들리기 쉬운 감정의 속성을 이용해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양회에 가서 한 결심과 기도들의 많은 부분들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잊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무한루프

저녁집회 설교 말씀의 중요 모티프 중 하나는 ‘금송아지’였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외치지만 그것은 사실 우상인 것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헌신들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 낸 금송아지가 아닌가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매우 큰 짜증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마치 하나의 굴레처럼,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믿는다는 건 뭘까? 믿음이 우선이지, 고민해보자’ → ‘네가 믿는 게 다가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단다.’ → ‘맞아 회개하고 헌신해야지!’ → ‘네 헌신이 순수한 것 같아? 회개하고 돌이켜!’ → ‘아,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집중해야지’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단다.’ → ‘앗...’ → (...반복...)

의 무한루프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순수한 것이 있을까,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하는 답답함이 생기고, 이제는 그런 고민조차 귀찮고 지겨워졌습니다. 공산당보다 더한 자아비판(=회개)을 강요받고, 계속해서 정죄 받는 느낌이 싫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내 잘못이니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신앙에서 이 언저리를 계속 도는 느낌이, 간헐적이라도 발전하지 못하고 이 언저리만 맴도는 느낌이 너무 싫었습니다.

여기에 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의 가치관과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소하게는 설교를 전하시는 방식부터, 여러 사회정치적 이슈들이나 쟁점문제에 대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에 이질감을 느꼈는데 고집이 매우 센 저로서는 다소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설교 중간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사안들이 나올 때 마다 속에서 화와 답답함이 쌓여서 예배시간을 버티는 게 힘이 들었고 심지어 목사님이 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장(4~5 명으로 이루어진 방의 조장)이었고, 누

군가에게 제 어려운 점들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습니다.

마침 간사님께서 제게 수양회 잘 보내고 있냐는 연락을 해 주셨고, 간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앞에 앉은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울면서 솔직히 제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밋고 화가 나서 예배 시간에 자리에 버티기도 힘들고 지금 제 모습도 답답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간사님께서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런데 지영이가 지금 왜 이렇게 슬플까? 보통은 싫으면 싫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잖아’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 맞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혼분하면서까지 힘들어하지?’하고 자문했습니다. 사실 신앙에 회의감을 가지는 것이나 설교말씀이 듣기 싫어서 짜증내는 게 저에게는 꽤나 자주 있는 일이었는데, 그 안에서 제 나름대로 쏘아 올리는 작은 불씨들이 계속해서 꺼져가고 결국은 그 무한히 반복되는 굴레 속에 갇히는 것 같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 왜 사는가

작년 한 해는 ‘나는 왜 살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박했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거지?’, ‘죽으면 부모님이 슬퍼하시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건가?’, ‘이렇게 삶이 힘든데 내가 왜 굳이 살아야 할까?’ 등의 의문을 붙들고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 나름의 방향을 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처음으로 JOY 모임에 나갔을 때 들었던 질문도 ‘너는 왜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죽음과 인간 삶의 무상함에 대해 고민하다가, 여러 과정을 거쳐 결국 제가 찾은 답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야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럼 행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이라는 질문이 당연한 수순으로 따라왔지만 제 정신의 안위를 위해, 그리고 행복했으므로 무시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힘들 때 울면서 제가 왜 사냐고, 제가 지음 받은 이유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의 뒤따라오던 그 침묵을 잊지 못합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늉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침묵은 저에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음의 이유를 ‘하나님을 위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의 당당한 눈빛을 보며 참 부럽고 또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특강 시간에 해외파송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부러워서 저도 제가 사는 더 큰 목적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다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내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도 알 것 같다는 마음에 간사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더 조급해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했던 것 같습니다.

4. 한달 전 수양회를 돌아보며

저에게 수양회 마지막 날까지도 특별한 기적이거나 체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상처뿐이었던(!) 수양회를 마치고 저는 한동안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도한다 해도 실패해서 받을 상처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 남짓의 시간이 흐르고, 그 수양회에서의 기억을 돌이켜 볼 때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이것은 상처받지 않기 위한 제 심리적 방어기제로서의 정당화일수도 있고, 제가 그 이후의 방학동안 매우 나태하고 평화롭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워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양

회에서 가시적인 무언가(성장, 또는 확신)를 얻어가야 한다는 당시의 조급한 마음을 벗어나 여유를 갖고 살펴 볼 때 분명히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a) '그래서 나보고 뭘 어찌라는 거지?'라는 질문에 '내가 뭘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무언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질문에, 내 노력으로 다가갈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 무작정 기다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b) 내가 왜 사는지를 보다 잘 알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순수하고 선한 동기인가? 사실 이것도 예전부터 계속 지속되어왔던 무한루프 중 하나이긴 하지만, 저는 지난 한 학기동안 제가 너무나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것을(믿는 척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 수양회를 거치며 지식

적인 신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은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c) 내가 뭘 믿는지, 뭘 아는지, 믿고 싶거나 한지, 믿음이라는 건 또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믿음에 대해 알아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글을 읽으면서 '참 믿음이 없는 애구나!'라는 것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다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거나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진지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글은 7월 15일 JOY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 올렸던 저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정지영(영어영문 15)

단대기연 소식

간호대

안녕하세요! 간호대 기독교인 연합은 간호대학 기독교인 학생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연건 캠퍼스에 있는 의대, 치대 기독교인 학생들과 연합하여 매 학기 개강, 종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 개강예배는 9월 13일 수요일 병원교회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개강예배 후에는 의대, 치대 학생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쁜 전공 수업으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개강장 예배를 통해 간호대 기독교인 학생들과 교제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대표 연락처: 간호 14 박윤서(010-4846-1907)

경영대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7학년 새내기 여러분(특히) 반갑습니다! 경영대에 속한 크리스천들의 모임인 경기독(경영대 기독교인 모임)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관점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어려운 것을 한번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거나 선배와 친해하려면 꼭 술자리여야만 하나..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독은 모이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신뢰가 가고 큰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끝없는 경쟁과 자기계발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쉼표가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경기독에서는 매주 초청되신 목사님이나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삶의 방향과 고민을 가진 경영대 멤버들과의 깊은 나눔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경영대 강의실에서 경기독과 푸짐한 간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 학점뿐만 아니라 신앙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기독 모임에서 뵙요!

대표 연락처: 고예찬(12학번 010-7168-2056)

공대

공대 기독교인 연합은 서울대 공대생 기독교인들의 모임입니다. 공과대학이 워낙 크다 보니 각 과별로 기독교인 모임이 세워져 성경공부하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선해양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산업공학과 등 기독교인 모임이 세워지지 않은 과들도 기독교인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공동체가 속히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지난 학기에는 신입생과 기독교수와의 만남, 개종강예배 등의 시간을 통해 공대 기독교인들이 교제하고 섬기며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학기부터 과 기독교인 모임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공기연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학기에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여 공대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공대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대표 연락처: 민경현(건설환경공학부 15) 010-9964-1165

농생대

안녕하세요, 농생대 기독교인 연합(농기연)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캠퍼스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함께 모여 농생대와 캠퍼스를 위해 중보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터 꿀물봉사, 축제 부스 운영, 시험기간 간식나눔 등 농대를 섬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함께 예배하고 기도제목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놀러가기도 합니다 :) 지금 이 소개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농기연 모임에 초대합니다♥ 지체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되고, 농생대 안에 예배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됨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가오는 새학기 모임 시간과 장소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요일 점심에 서기연 룸(학생회관 416호)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농기연은 농생대의 모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모임에서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홍준영(원예 16) 010-3874-3029
이지인(원예 16) 010-4100-7430

미대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대 크리스천 모임 '미크모'입니다. 미크모는 1978년도 에 처음 미대 안 크리스천 학생들이 모여 만든 모임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미대 안에서 섬기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현재 10명 남짓한 다양한 과(서양화, 동양화, 조소, 디자인)학생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동아리 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크모는 전시를 열어 사람들에게 미크모를 알리고 전도하는 프로클레임 전, 학교 축제 내 파인애플 장터, 미대 음악집회 등등의 규모가 큰 행사들을 기획,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미크모는 미대 내 구조 공사로 그동안 예배를 드렸던 동아리방에서 나와 마땅한 예배 공간이 없이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꾸준히 새로운 신입생과 미크모로 바로 설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무너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대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크리스천으로 바로설수 있는 학생들이 되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대표: 오찬주(서양화 15)

사범대

서울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사범기연을 소개드리려고 해요! :-)

사범기연은 사범대 내의 기독교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각 과별 기독교인 모임(과기독모임)의 연합체입니다. 신앙의 선·후배와 동기들끼리 식사교제와 기도, 찬양, 예배, 삶 나눔 등을 하며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고,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항상 열려있습니다~

현재는 교육학과 모임(GENESIS), 영어교육과 모임(SEE), 수학교육과 모임(COME), 사회교육과 모임, 물리교육과 모임, 화학교육과 모임(화기애애), 생물교육과 모임(DELTA), 대학원생 모임 등 많은 학과에서 함께 기도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어교육과의 박동영 교수님이 지도교수님으로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독교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범기연은 이번학기 매주 수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사범기연 기도회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9동 309호로 찾아와주세요~^^ 이 외에도 '여명학교 교육봉사', 'MT', '신입생 기독교수와의 만남', '복음자리', '새터 꿀물 봉사' 등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사범대 학생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사범기연에 속하는 것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사범기연은 기독교인 학우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알아가고 싶은 분에게도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범기연 대표:
윤리교육과 16 한예슬(H.P. 010.6451.0356)

사회대

사회대기독교인연합♥은 함께함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연합입니다! 저희는 각박한 캠퍼스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하며 함께한다는 단대기연의 기본적 목표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마음의 안식처, 학문과 신앙에 대한 토론, 전도의 구심점 등 의미의 영역을 확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주일에 1번,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회기연은 활동인원 다수의 졸업으로 인한 공백기를 거치며 새롭게 모임을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의 참여, 관심, 무엇보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표 연락처: 김현서(정치외교 16, 010-2484-4738)

생활대(예혼)

안녕하세요, 생활대 기독교인 여러분!

저희 기연 이름인 '예혼'은 예수님의 흔적의 줄임말입니다. 그만큼 저희의 일상의 터전인 생활대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같이 모여 기도드리고 말씀을 보며 하나 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시간에 초대합니다.)

대표 연락처: 박민채(소비자 15) 010-7122-9176

약대(새벽빛)

약대 기독교인들의 교류와 단과대 복음화를 위해 1992년 처음 시작된 새벽빛은 올해로 26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빛은 약대 기독교인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며, 어떻게 우리 단과대를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임입니다. 격주로 모임을 갖고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절 달걀 나눔, 시험기간 초콜릿 나눔 등의 섬김을 실천합니다. 본 학기부터 새로이 단과대 자체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약학대학 지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표 연락처: 한근희(약대 14, 010 7173 4909)

인문대

인문대기독교인연합(인기연)은 인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고민하며 나누는 모임입니다! 인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배하는 인문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 점심 식사 교제를 하고 있으며, 기독교인 교수님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나눌 친구, 선배, 후배, 동역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 함께 인문대에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요 ♡♡♡

대표: 홍혜림(서문14) 010-7740-4084

자연대

자기연(자연대 기독교인 연합)은 자연대 소속 과 기독교인 모임들의 연합으로, ChristMas(수리통계), ChristPhyA(물리천문), 하연(화학), 생기모(생명), 지기모(지구환경) 5개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 기독교인 모임은 가까운 일상과 비슷한 관심사

를 공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 학업과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과별로 모임 진행이 조금씩 다르고 각각의 특색들이 있지만, 주 1회정도 정기적으로 모여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려 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하나랍니다!^^ 주로 과별로 모이지만, 2학기에는 공정 무역커피 판매전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기연 독서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대에 속한 기독교인 분들 중 과 기독교인 모임에 대해 잘 모르셨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공동체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사랑을 듬뿍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리통계: 신민섭 16 010-7128-3109
물리천문: 유상원 16 010-4363-6631
화학: 이장호 15 010-2004-0627
생명과학: 황민상 16 010-4612-8173
지구환경: 이예진 14 010-3450-3549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기독교인 연합, Shelter를 소개합니다. Shelter는 세상의 기준 속에서 지쳐가는 자유전공학부의 학우들과 캠퍼스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기독교인들에게 설만한 물가가 되고자 하는 선배들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여서 서로에게 위로가 될 때에 자전기연이 캠퍼스 내에서 진정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전기연은 이번학기 주 1회 점심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교제의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함께 소망해주세요.

기도 제목

: 먼저는 자전기연이 Shelter의 이름과 비전을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분주해져만 가는 상황 가운데 공동체에 모임의 시간과 장소가 허락되기를, 공동체 내에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 갈 수 있기를, 공동체가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대표 연락처: 자유전공학부 13학번 박동글 (010-3853-1408)

선교단체 소식

CAM

무더운 여름이 지나 쾌적한 가을이 다가오네요. 습기와 고온이 강했던 여름에는 CAM식물(파인애플 등)이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드디어 시원한 가을바람이 관악 캠퍼스(CAMPUS)에 불어오네요. 쾌적한 가을에 CAM 동아리는 매주 수요일 19시에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고로, CAM은 1982년에 창립된 동아리이고, 그리스도의 대사(Christ Ambassador Mission)의 약칭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대표 연락처: 김경수(자유전공 14, 010-6734-9511)

CCC

안녕하세요! 민족복음화의 최전방 서울대 CCC(Campus Crusade for Christ)입니다! CCC는 'Building Movements Everywhere'라는 구호를 들고 캠퍼스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있는 제자들로 성장시키며 영적 운동을 일으키기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교제하며 교육하며 순장리더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CCC는 매년 겨울방학의 시작과 동시에 금식수련회, 기도수련회 등에 참석하여 집중적인 전도훈련을 받고 매 방학마다 해외단기선교를 떠납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시간을 가집니다. 금요일에는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제자된 모습과 제자를 세워가는 모습을 고민하며 나눕니다. 함께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마구 두드려주세요! 축복합니다.

대표: 김다빈(기향 15) 전화번호: 010-7151-5199

CMI

CMI는 여름방학 동안 성화(聖化)의 말씀에 집중하여 다음 학기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강림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까지를 함께 나누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서울 남부지방단위로 3박 4일로 전국 대학의 CMI가 모여 진행되는 바이블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what's your name?'이라는 기조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마음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일본으로의 비전 트립에는 저희 두 명의 형제가 참여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본의 교회를 방문하고 신앙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는 8월 31일에 있을 개강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학동안 뿌려진 말씀이 열매를 맺

어 많은 형제자매들이 목동 목자선서를 위해 마음을 모아 리더단에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CMI는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오은총(대표010-3284-3455 약대 13),
최여래(총무010-7229-2562 바사공 16)

Emmaus

엠마우스(Emmaus)는 서울대의 유일한 영어 기독교 선교단체로서 제외국민, 외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누가복음 24:13-33 에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과 같이 인생이라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과 기쁨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Emmaus 는 기숙사 920동 지하 1층 다인홀에서 매주 수요일 7시에 예배(large group)를 갖습니다.

Emmaus is a Christian campus ministry in Korea serving English-speaking college students. Our vision came from Luke 24:13-33 which Jesus walked along with His two disciples and their eyes were opened to the good news of Christ. We host large group and small group gatherings throughout the academic semesters on every Wednesday in Building 920, Agorium B1. Students of various denominational backgrounds and local churches are welcome to join us. Whether you are in Korea for one semester or four years, come join us for an unforgettable walk on the Emmaus road!

대표 연락처: 에이미(건축학과, 14) 010-2579-1259

ESF

ESF는 복음전파에 관한 사도행전 1:8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근거로 캠퍼스복음화, 성서한국, 세계선교를 목표로 설립된 복음주의 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양-목관계 진행되는 일대일 성경공부와 캠퍼스별 그룹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캠퍼스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동아리 형식으로, 서울대는 관악지구와 동작지구로 이루어져있고, 각자 매주 목, 금요일에 타 캠퍼스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캠퍼스 별 큐티 모임을 통해 말씀을 묵상합니다. MT도 가고, 소풍도 가고, 방학에도 꾸준히 예배드리는 활발한 공동체입니다!

대표 연락처: 배영현(수리과학부 12) 010-9604-0787
정중환(농경제사사회학부 14) 010-4670-9463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IVF는 “�퍼스와 세상속의 하나님나라 운동”의 비전을 갖는 연합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IVF에서는 복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세우며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기 위한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모임, 말씀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성경공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저희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매주 화요일, 서울대 IVFer 모두가 함께하는 큰모임에서는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주로 목요일에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에서 책나눔, 성경연구 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발적인 소그룹 모임과 아침기도회, 선후배간의 친솔한 원투원(One-to-one)을 통해 믿음을 세워가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누리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소금 : 사회교육과 15학번 강한나 (010-2250-3211)

빛 : 소비자학과 15학번 박민채 (010-7122-9176)

JOY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JOY선교회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를 줄인 말로,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여길 때 참 기쁨(JOY)이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려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에 JFM (Jesus First Meeting)으로 예배를 드리고, 학기 중 OSM (Others Second Meeting)을 통해 이웃을 둘째로 하는 정신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전국 수양회와 지부별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외에도 학기 중엔 엔조이어(New Joyer)모임, 엠티, 복음캠프, 소풍으로 방학 중엔 방중모(방학 중 모임), 여행으로 함께하며 서로 교제하고 있어요♥

저희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New joyer 언제나 환영해요.)

형제대표 이준형 010-9401-7226

자매대표 정하원 010-2323-9728

LDI(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

안녕하세요! 새학기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새내기 여러분, 재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DI는 비전이 없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 성경이 말하는 비전, 생명을 살리는 비전, 생명이 성장하여 열매 맺고 재생산하는 비전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캠퍼스뿐만 아니라 직장, 사역지 등 청년들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작은 겨자씨들을 뿌리며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LDI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세워 주님의 지상최대의 명령(마태복음28:19,20)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쓰임 받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의 사명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캠퍼스에서는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앙, 학업, 대인관계 등 전인격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일대일 멘토링,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노방전도 훈련, 소그룹 성경공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모임에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하고, 또한 캠퍼스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인격화 되는 순종훈련을 통해 형제자매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실 마음 따뜻~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LDI 사역과 모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환영해요!

<학기중 모임 소개>

*서울대 전체모임: 매주 목요일 늦은 6시 30분, 6동 105호

대학원대표: 김지나(생물정보 박사과정) 010-4118-2705

UBF

안녕하세요~ UBF에서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은진입니다. 항상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아리 소개글입니다.

UBF(University Bible Fellowship,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사명으로 한국과 전 세계의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선배님과 1:1로 성경을 공부하며 각자의 수준에 맞추어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주 식사가 있는 그룹 성경공부가 있고, 매 학기 바이블 토크콘서트, 즐거운 MT가 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바이블캠프를 통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UBF는 영육 간에 따뜻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동아리방에서 맛있는 식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낙성대역 부근에 형제, 자매 학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UBF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동아리 방: 75동 1층 109호 (농대식당 옆 대학신문 건물)

연락처: 간사- 변다니엘 010-4035-3504

학생대표 - 전기15 이은진 010-2978-3275

YWAM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 외웜(YWAM, Youth With A Mission)이에요. '미션', 예수님이 저희를 초청하시는 부르심은 생각보다 풍성하고, 은은하고 따스한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우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모이는 깊은 예배, 목요일에 가는 캠퍼스워십, 알콩달콩한 소그룹들과 매 학기 열리는 MT(치킨! 족발! 잔잔한 교제), 항상 기타와 보드게임으로 풍성한 학생회관 416호... 는 저희를 특징짓는 키워드들이랍니다. 아 물론 그리고, 외웜의 꽃인 전도여행을 빼놓을 수 없죠! 여름마다 국내로, 겨울마다 해외로 떠나는 전도여행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따르는 법을 배워요. 이번 여름 제주도와 울릉도를 다녀온 저희는, 겨울에 다시 탄자니아와 동북아시아로 떠날 예정이랍니다.

함께하고 싶어요! 저희를 통해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 저희가 풍성해지는 걸 간절히 바라고 기대해요. 416호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 기다릴게요!

캠퍼스모임 수요일 6:00 (교내), 목요일 6:30 (아현감리교회)

대표 연락처 이승현(교육11) 010-3322-4801, 신서현(식공14) 010-4736-7116

네비게이토 선교회

여름 방학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잘 보내셨나요? 네비게이토는 예수님의 지상사명인 (마28:19-20)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찌 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방학 기간 동안 우리 네비게이토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학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여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가치 있음을 확신하고, 인생의 가장 귀한 젊음의 시기를 주님을 배우는 데 드려야겠다는 동기를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아침 QT 모임을 통해 각 사람이 개인적인 주님과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하루를 믿음의 시야로 전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말씀 읽기와 성경 암송을 통해 삶의 순간순간 크고 작은 결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떠올려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2학기에는 각 사람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읽기 모임 : 수요일 5시 25동 강의실

성경공부 모임 : 토요일 11시 500동 강의실

대표 : 오영탁

연락처 : 010-3952-9306 / oyt9306@gmail.com

두루 선교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9:35)

두루선교회는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에 근거하여 지상명령 성취(마 28:18-20)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루제자훈련은 교회와 평신도 중심의 제자훈련을 강조하며, 현재 회원들이 속한 지역교회를 바탕으로 서울대 외 20여개 대학/고양외고를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직장/해외선교 등 전방위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 캠퍼스에서의 시간은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에 캠퍼스에서의 제자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캠퍼스에서 매주 소그룹 성경공부 및 매달 지부별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체육대회와 식사교제 등 성도간의 모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김기훈(전기11) 010-4053-9530

감사합니다.

한사랑선교회

한사랑선교회(The Love Mission)는 무한한, 영원한, 유일한,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인격의 생명화(거듭남)와 삶의 생명화(이 생명이 모든 영역에 빛으로 드러나는 것)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섬기는 예수제자 공동체입니다. 7월31일~8월2일까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일어나 벨렐로 올라가자"라는 주제로 연합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새학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도에 힘쓰고 양육으로 충성된 추수의 일꾼이 세워지며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고 또한 한국어교실을 통하여 외국유학생섬김과 전도 양육으로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뤄지기를 소망하며 2017년 2학기를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421호

대표 연락처: 명루(농생대 010-3094-9109)

단대기연 소개글

미크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대 유일한 크리스천 모임으로 미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미크모입니다. 미크모는 매년 10명 남짓한 미대 각과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소규모의 크리스천 동아리이지만 1978년도에 만들어져 40년 넘게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전통 있는 동아리입니다. 오래된 동아리인 만큼 수많은 작가 분들과 졸업생 선배님들이 계시고, 그런 선배님들의 작업과 저희들의 작업 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미크모를 알리는 행사 또한 30년 넘게 진행해 오며 계속해서 미크모의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크모는 매년 학교 봄 축제 때마다 파인애플 장터를 해 왔습니다. 왜 파인애플 장터를 하게 되었는지는 전통이 오래되어 잘 모르겠지만 점점 더위가 몰려오는 계절에 얼음을 한가득 쌓아놓고 파인애플을 수북이 쌓아놓고 팔고는 했습니다.

2017봄 축제, 미크모는 기존에 하던 파인애플 장터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장터를 열자는 기획을 했습니다. 미크모는 지원을 받는 곳이 따로 없어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 축제의 장터마다 파인애플장터를 열어 동아리의 행사비 마련과 동아리 내의 운영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미크모라고 하면 축제 때 파인애플을 파는 동아리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파인애플 값이 올랐고 노동력이 너무 투여 되는 반면, 미크모의 운영이 불가할 정도의 적은 수익만 남았습니다. 결국, 파인애플 장터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미크모의 전통을 깨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파인애플 장터를 대신해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왕이면 미대로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미크모가 지금 프로클레임 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떠한 전도의 형식으로도 섬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프로클레임 전과 장터를 합쳐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할 때쯤 서로의 작업을 엮거나 물건으로 만들어 판매해보고자 하였고, 이것이 미대 동아리로서의 존재감을 들어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될 수 있겠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진행 과정을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아리 안에는 미대 졸업을 위해 심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바쁜 미대의 커리큘럼으로 시간을 내서 장터 물품을 만든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동아리 내 사람들과의 갈등도 발생했고, 이대로 장터는 열 수 없을 것이라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짧은 시간 내에 이 행사를 준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미크모 부스에는 미크모 사람들의 개성이 넘쳐나는 엽서와 책갈피 그리고 스티커와 수제 쿠키들을 판매 했습니다. 파인애플 장터를 벗어나 처음 시도해보는 장터였기 때문에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행사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만들고 전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던 저희에게는 보는 것 이상으로 작업들을 판매한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한 자매가 자신의 작업이 사람들

에게 외면 받을까를 두려워하며 절규하기도 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무색하게도 저희의 장터에 매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습니다. 다가오셔서 '엽서와 스티커가 너무 예쁘다'라는 말을 하시며 동아리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미대에서 하는 행사인지도 궁금해 했습니다. 그리고 과분하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의 물건들을 사가시고 또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쿠키를 구우며 2일 동안 밤을 꼬박 새웠지만 피곤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장터 사진〉

감사하게도 이 장터를 통하여 미크모에서는 다음 장터를 위한 기금과 동아리 예배와 엠터를 진행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미크모 지체들에게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미크모는 미대 건물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동아리 방에서 강제적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 동아리 방을 지원받지 못한 채로 전전긍긍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전해주시던 전도사님 또한 같은 해에 나가시게 되면서 미크모는 점점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다시 처음부터 세워 나가는 걸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아리에서 큰 행사를 척척 해가며 성과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만족을 우선시 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미크모는 전보다 힘든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단단한 기반을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진행됐던 새 미크모 장터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미크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대에 세워나가실 일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미크모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찬주(서양화 15)

서기연 중앙위원단 MT



안녕하세요! 서기연 중앙위원단입니다. 저희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양평으로 워크샵을 다녀왔는데요, 이튿날 저녁에는 기독교 수협의회 송재준/장정주 교수님도 와 주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구름이 걸쳐있는 푸른 산이 시야를 가득 채우는 방에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각자의 부름을 나누며 우리가 중앙위로 모인 이유를 되새기기도 하고, 서기연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의 소망과 간구가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했답니다.)

